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1. 개요

▣ **2015. 2. 27., 3. 1.의 2회에 걸쳐 게시판 운영에 관한 제안 글 게시**

● 민감 사안 글은 단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할 것을 제안

● 현재 조회 수

- 전체 회원 수 388명
- 2015. 2. 27. 게시 글 ⇨ 조회 수 291회
- 2015. 3. 1. 게시 글 ⇨ 조회 수 162회

▣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임**

●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 첨부

2. 구체적 반응

▣ **2015. 2. 27.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댓글 1 ⇨ **관심 표명**[15.02.27. 08:26]

-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다음 글 꼭 이어서 써주세요~^^**

● 댓글 2 ⇨ 공감[15.02.27. 14:27]

- 글 쓴 분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 댓글 3 ⇨ 공감[15.02.27. 19:16]

- 법관들이라 **이 정도는 지킬 소양이 있을 거** 같아요.

● 댓글 4 ⇨ 공감[15.02.28. 05:52]

- 아 저도 이 사건 알아요. 보면서 이사야 떠올린 것도 똑같네요. 정보의 축

적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펴가기 금지 복사 금지 평 활용 등이 적극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2015. 3. 1. 제안 글에 대한 반응

● 댓글 1 ⇨ 공감[15.03.01. 03:52]

- 좋은 고민 글 감사합니다. 원글님의 이사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네요. 저도 유사시 외양간 버리기가 불가피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머리를 굴리게** 되는군요.

- 유스랑 다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일단 유스는 사직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론 반대 입장입니다만, 실명 활동으로 이미 친분이 있는 터라 그런 것 같아요. 한편 평 문화는 유스에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평할 권리는 당연한 글쓴이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설령 댓글이 달려 있어도** 말입니다. 다만 운영진에게 평 권한을 주는 것은, 운영진이나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운영진에게 삭제, 검열 권한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사야 운영진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만.

- 반대로 글을 삭제할 '의무'가 운영진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회원들이 댓글로 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 운영진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원글님께서 급한 대로 평문화부터 제안하신 것 같고, 저도 당장 다른 수는 안 떠오르는데**, 다른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남성 회원들이 기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익명이기까지 한 **이곳이 유스보다 좀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은, 제 근거 없는 편견의 발로이기를 바랍니다...

● 댓글 2 ⇨ 공감[15.03.01. 11:33]

- 글 쓰신 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유스는 사직 시 회원 등급이 조정

되어서 일부 게시판 글은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보다 아이들 키우는 얘기, 아주머니 얘기가 많으니 감사하게도 외부의 관심이 덜하겠지만요.

- 댓글 3 ⇨ 관심 표명[15.03.01. 21:34]

- 유스티티아는 뭔가요?;;;

- 댓글 4 ⇨ 공감[15.03.02. 00:44]

-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에 쓰시는 글들 모두 기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코트넷에 쓴 게시물들이 왜 등록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되겠나요. **언론인을 가족으로 둔 법원 직원, 법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의 존재도, 이 카페에 올려진 글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취재 과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난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댓글 5 ⇨ 공감[15.03.02. 07:33]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양식을 믿자..라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3. 향후 계획

▣ **오늘과 내일 중으로 본격적인 게시 글 열람이 이루어질 것임**

- 통상적으로 평일 낮 시간에도 접속이 상당히 빈번함

▣ **좀 더 구체적인 논의 내지 논쟁이 있을 것임 ⇨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함**

- 논의·논쟁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임. 끝.

제목: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1. 새뱃돈 사건 ⇨ 2015. 2. 27. 게시 글
네이버에 소위 중산층 이상 사는 엄마들이 정말 거리낌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남의 눈, 귀 의식하지 않고 쇼핑, 육아, 시월드 문제에 관해 노골적인 수다를 나누는데, 특히 그 정보력이 엄청나서 중독성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그런 노골적인 수다가 가능한 원동력은 바로 엄격한 회원제 비공개 카페라는 점이에요. 기존 회원의 초대와 시삽의 승인을 통해서만 게시판 접근이 가능한데, 흠... 우리랑 많이 닮았죠? 암튼 그런 공간 속에서 맘들은 남편 욕, 시어머니 욕도 후련하게들 쏟아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 연휴에 맘들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판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카페 게시판에 어떤 맘이 올린 속풀이 글이 '새뱃돈 차액 돌려달라는 시댁 형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거에요.(http://issueviewer.tistory.com/449)
게시판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우리끼리 속풀자고 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냐...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냐... 대체 누구냐, 색출해서 쫓아내자 등등... 하지만 유출 경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어요. 사실 유출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저도 기사화되었으니 옮기는 거지만, 맘만 먹으면 우리 카페에 그 글을 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들은 '펑'을 해요. 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2. 법복 입은 가면무도회 ⇨ 2015. 3. 1. 게시 글
탐 크루즈가 나온 '아이즈 와이드 셧'이란 영화 아시죠? 유명한 가면무도회 장면이 있어요. 좀 야한!... 저는 요새 그 이미지가 종종 떠올라요. 우린 이 카페에서 가면무도회를 즐기고 있는 거죠.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채 속이야기를 편히 풀어놓죠.
근데 최근의 이 모 부장님 상황을 보면서 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즐기는 무도회는 아이즈 와이드 셧에서처럼 밀폐된 저택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우린 뻥 뚫린 들판에서 또는 대로 옆 공원에서, 가면은 썼으되 법복을 입고 우리 신분은 노출시킨 채라는 것을...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게시판 아래에서는 우리는 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장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저희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우린 이 공간이 밀폐된 방음시설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유리박스 같은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건, 사실 ISP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면 심한 표현일까요? 여기 들어올 때 로그인 안 하셨어요? 요샌 '로그인 유지' 기능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요. 심지어 기자들이 '귀대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관예우가 어떻고, 이 모 부장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려고요.
유스티티아도 있지 않냐구요? 거긴 달라요. 거긴 실명을 걸고 활동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남다르죠. 소곤소곤 기능이 있어봤자, 어차피 서로 실명을 걸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부 익명글이라도 '다함께 책임'이란 생각이 있어요. 거기선 최소한 동료였던 이○○ 전 부장님 호칭을 '이 사무장'으로 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려고 익명인 걸까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린 가면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단이 나도 다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 '판사'는 욕을 먹을 거에요. 그럼 여기 모인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 동

료, 선후배들이 괜시리 욕을 먹고. 그럼 그 분들은 우리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거예요. 밥조에서 시침 뚝 떼고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냥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탄 뗏목은 그냥 뗏목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요. '판사호'라고 버젓이 쓰여진 뗏목이에요. 그건 기자들이 이미 알고 세상이 아는 일이 되어있어요. 그냥 뗏목 갈아타고 말 일일까요?

3.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 대신에 우리도 펑? ⇨ 2015. 3. 1. 게시 글
지난번에 민감 정보에 관해서 우리 카페가 내린 결론은 '우리 양식을 믿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게시판을 닫자'였어요. 고상한 결론이긴 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뿐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버려야 한다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한 맘들 카페에선 '펑'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연옌찌라시 올리고 나서 주로 하던 건데, 이제는 보편화되었어요. 뭐냐면 좀 민감한 글은 글을 올리면서 올리는 사람이 '이 글은 몇 분 후에 펑합니다'라고 예고해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동안만 다양한 댓글,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글쓴이가 글을 자삭하는 거에요. 시어머니 욕, 19금 이야기, 연옌스캔들 이야기도 그래서 가능해요.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판사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난다면 뭐하다 싶은 글은 펑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꼭 이 게시판에 우리 생각들을 축적시켜 놓을 필욘 없잖아요. 나중에 추억삼아 볼 일도 없고.
글구 운영진도 스스로 펑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전 제가 이 공간의 일원으로 멍하니 있다가 괜시리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은 싫습니다.

다들 한 번 생각해주세요. 이런 글 '운영건의' 게시판이 맞지만, 거긴 아무도 안 들여다볼 거 같고. 우리 카페 유지하려면 지금처럼은 어려울 거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거 같아요. T.T